

신소설을 통해 본 개화기의 인간 커뮤니케이션 양태*

채 백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 연구는 소설이 허구의 세계이지만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한다는 전제에서 9편의 신소설을 통하여 개화기 일반 백성들의 다양한 인간 커뮤니케이션 양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화기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큰 특징은 신문과 서적, 우편, 전보, 전화, 사진 등 새로운 매체의 출현으로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다양화되었다는 점이다. 새로운 매체들이 출현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구두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하는 전통적 방식이 중심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구두 커뮤니케이션에서 신분과 연령이 가장 큰 변수가 된 점은 조선 후기와 같았지만 격식과 예법은 많이 완화되었다. 또한 문자 문화의 기반이 대폭 확대되었다. 새로 등장한 매체들도 대부분 문자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며 여성이나 천민 계층에서 한글 사용이 늘어났다. 개항으로 외국과의 교류가 가능해짐으로써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 세계가 확대되며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도 이루어져 필담이나 통역 등의 형태도 등장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개화기의 인간 커뮤니케이션 양태는 여전히 구두 커뮤니케이션에 주로 의존하면서도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의존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하여 원거리 커뮤니케이션도 신속하게 가능해졌으며 문호 개방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의 영역과 범위도 확대되며 그 방법도 다양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KEYWORDS 언론사, 개화기, 신소설, 인간 커뮤니케이션, 구두 커뮤니케이션, 집단커뮤니케이션, 미디어커뮤니케이션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2A01017032)

** bchae@pusan.ac.kr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이 연구는 한국 개화기의 일반 백성들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살았는지를 규명해 보려는 것이다. 그 시대 백성들은 어떠한 매체를 이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며 주변의 가족이나 동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살아갔는지 즉 다양한 인간 커뮤니케이션 양태를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최근 조선 후기에 생산, 유통된 한글 소설의 내용을 분석하여 거기에 나타난 백성들의 인간 커뮤니케이션 양태를 분석한 논문이 발표되었다(채백, 2014). 본 연구는 그 후속 연구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대를 달리하여 개항 이후의 한국 사회 즉 개화기에 나타난 신소설을 분석하여 당시 사회의 인간 커뮤니케이션 양태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서구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한국 사회는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게 되었다. 커뮤니케이션 분야도 예외일 수 없다. 1883년 『한성순보』가 창간된 것을 계기로 하여 근대 신문의 시대가 막을 열었으며 뒤이어 잡지도 출현하고, 전신과 우편, 전화 등 새로운 미디어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화기의 일반 백성들이 구두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여러 매체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이용하였는지도 분석해 보려고 한다.

채백의 연구(2014)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내의 언론사 연구 분야들은 대부분 매스 미디어 중심의 역사 연구에 치중하며 매스 미디어가 보급되기 이전의 전통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진하였다. 전통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을 논하는 연구들도 대부분 조선시대 제도적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연구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시도(이상희, 1993; 박영학, 1990; 정일권, 2010; 김광옥, 1993 등)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 특정의 매체나 현상을 개괄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치고 있다.

전통 시대 일반 백성들의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료의 문제 때문일 것이다. 현존하는 자료나 기록들은 대부분 정부 관련 공식적 기록들이며 그 밖의 비공식적 기록들도 문자 해독능력을 갖춘 사대부층 중심이다. 대다수의 일반 백성들은 문자로부터 소외되었기에 그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삶을 영위했는지를 알려주는 직접적인 기록은 찾아보기 매우 힘들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전통 시대 일반 백성들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는 공백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면 가능한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서라도 규명하는 방법이 필요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통해 고대 그리스 사회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양태를 분석한 프랑스의 코린 쿨레의 연구(Corinne Coulet, 1996/1999)는 본 연구의 모델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설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소설은 허구의 세계이기는 하지만 당시의 사회상을 잘 반영한다. 소설은 그 텍스트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게 마련인 것이다. 소설과 사회 구조의 관계에 주목하여 소설사회학의 체계를 제시한 루시앙 골드만(Lucien Goldmann, 1982, 17~21쪽)은 소설을 일컬어 ‘사회 속에서 개인의 일상생활을 문학적 차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서 ‘하나의 사회적 역사를 구성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소설을 통해서 사회적 역사를 읽어낼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여 국내의 학계에서도 소설을 통해 과거나 다른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면 김주연(1985), 이온죽(1988), 박일용(1991), 문용식(1997), 이민희(2009)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들이 잘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는 소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측면들을 규명해 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조선 후기의 인간 커뮤니케이션 양태를 분석한 채백의 연구(2014)와 달리 개화기를 대상으로 당시 사회의 인간 커뮤니케이션 양태를 분석하려고 한다. 개항 이후 한국 사회는 근대 신문을 비롯해서 잡지와 서적, 우편, 통신 등 새로운 매체들이 도입되면서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조선 후기와 구분하여 개화기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개화기 사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신소설이 좋은 텍스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문학사에서는 이 시기에 나온 소설들을 고전 소설과 구분하여 ‘신소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전광용, 1986). 이 논문에서는 신소설을 통해 개화기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인간 커뮤니케이션 양태를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화기의 일반 백성들은 가족이나 공동체 내에서 다른 구성원들과는 어떠한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였으며 공동체 내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가는가, 그리고 당시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근대 신문이나 전신, 우편과 같은 매체들을 어떻게 이용하였는가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양태를 분석해 보려고 한다. 소설을 통해 전통 시대 일반 백성들의 커뮤니케이션 양태를 분석하는 이러한 연구는 전근대 커뮤니케이션사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소설이라는 텍스트를 이용하는 시도는 기존 한국 언론사 연구의 범위와 시각을 확대시켜 주며 전통시대의 전근대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어느 시대나 인간들은 당시 사회의 발전 단계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왔다. 이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개화기의 백성들도 역시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최대한 동원하여 커뮤니케이션하였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인간 커뮤니케이션(human communica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분석해 보려 한다. 인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한다(강길호·김현주, 1995, 15쪽). 이 논문에서는 먼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구두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즉, 문자나 그림, 인쇄, 통신 등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나은영, 2002, 26쪽).

전술한 대로 본 연구에서는 개화기의 신소설이 주 분석 대상으로서 총 9편을 분석하였다. 신소설이란 명칭은 이인직의 『혈의 누』가 1906년 『만세보』에 연재된 이후 1907년 4월에 김상만서포(金相萬書鋪)라는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고 이를 『만세보』 1907년 4월 3일자에 광고하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알려졌다(김윤식·김현, 1996, 158쪽). 이후 당시 발표된 소설들도 이 ‘신소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이것이 한국 문학사에서 소설의 한 양식을 대표하는 문학사적 용어로 정착되어 대개 이인직의 초기 작품부터¹⁾ 1917년 이광수의 『무정』이 발표되기 이전까지의 작품들로서 그 이전의 고소설에 비해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던 작품들을 지칭한다(전광용, 1986, 10~21쪽).

이 시기에 발표된 소설들은 번역, 번안들을 포함하여 총 130여 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윤식·김현, 1996, 165쪽). 그 중 대표적인 소설 9개를 다음의 <표 1>과 같이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국문학 분야의 고전 소설 전공자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본 연구의 취지를 알리고 다양한 사례를 분석해 낼 수 있도록 소설의 배경이나 작가, 등장인물, 줄거리 등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상을 선정하였다.

이 논문이 분석 대상으로 하는 개화기는 일반적으로 개항 이후부터 일제 강점기 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역사비평 편집위원회 엮음, 2006). 대부분의 한국사 연구들이 이러한 시기 구분을 채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1910년 일본에 강제 병합되기 이전까지를 대상으로 할 경우, 분석 대상 소설이나 작가가 소수에 한정되는 결과를 가져 온다. 최초의 신소설

1) 일반적으로 신소설의 효시는 이인직의 『혈의 누』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문학계에서는 그보다 6개월 먼저 『대한일보』에 연재된 일학산인(一鶴山人)의 『일념홍』이나 그보다 앞선 1898년 일본인들이 발행한 『한성신보』에 연재되었던 토소자(吐笑子)의 『옛장사』를 효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들도 있다(설성경, 2005, 제2장 참조).

작가로 알려진 이인직과 이해조만이 1910년 이전에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다. 이 시기에 나온 다른 작가의 신소설로는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이 있으나 이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화의 형식을 빌어 외세의 침략을 비판한 것(조동일, 2005, 379쪽)으로서 소설의 텍스트에서 당시의 사회 현실을 분석하려는 본 연구의 성격과는 맞지 않아서 배제하였다.

나머지 대부분의 신소설들은 1910년 이후에 발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당시 사회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현실을 분석하기 위해 1910년대 초반에 간행된 여러 작가들의 작품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12년도의 작품까지 포함하였다. 판본은 전광용·송민재·백순재 함께 편찬한 『한국신소설전집』(1968)을 토대로 하였다. 일제 강점 이후이기는 하지만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현실은 몇 년 사이에 커다란 변화를 겪기는 어려우므로 개화기의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서다.

이 9개의 신소설을 대상으로 연구자 외에 2명의 보조 연구원이 함께 읽어 가면서 질적, 귀납적 방법으로 소설에 나타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사례를 추출하였다. 이 사례들을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라 구두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누고 각기 상황 및 미디어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1. 분석 대상 신소설 목록과 특징

번호	제목	작가	발표 년도	특징 및 주제
1	혈의 누(血의 淚)	이인직	1906년	최초의 신소설, 신교육과 자유 결혼 묘사
2	치악산(雉岳山)	이인직	1908년	양반의 부패와 고부간 갈등
3	은세계(銀世界)	이인직	1908년	부패한 관리를 비판한 정치 소설
4	빈상설(貧上雪)	이해조	1908년	소실 때문에 패가망신 하는 가정 비극
5	구마검(驅魔劍)	이해조	1908년	미신으로 가산 탕진하는 내용
6	화의혈(花의 血)	이해조	1911년	부패한 관료의 몰락을 다룬 작품
7	추월색(秋月色)	최찬식	1912년	신지식층의 애정관, 결혼관을 다룬 작품
8	화상설(花上雪)	김우진	1912년	축첩 문제의 폐해를 다룬 작품
9	재봉춘(再逢春)	이상협	1912년	신분 차이로 빚어지는 갈등을 다룸

2. 개화기의 구두 커뮤니케이션

개항 이전의 조선 후기까지는 인쇄매체가 보편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의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면대면 상황의 구두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하였다(채백, 2014). 개화기는 개항 이후 서구 문물이 들어오고 신문과 우편, 전신 등 새로운 매체가 등장한 상황에서 개화기 백성들의 구두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1) 대인 커뮤니케이션

(1) 혈연간의 커뮤니케이션

① 부부간

개화기의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대체로 서로 높임말을 사용하며 대화를 하였다. 이는 양반층뿐만 아니라 하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치악산』(303쪽)에서 남자 주인공의 아버지 흥참의가 부인에게 “마누라, 무슨 걱정되는 일 있소?”라고 말을 건네자 그 부인은 응대하며 “눈으로 보지도 말고, 귀로 듣지도 말고, 입으로 말도 말고, 하루바삐 죽어 몰랐으면 좋겠소”라고 말한다. 두 사람 모두 높임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양반 가문 출신으로 외국 유학까지 마친 개화된 젊은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추월색』(51쪽)에서 외국 유학을 마치고 결혼한 주인공 영창과 정임이 신혼여행 중에 나누는 대화를 보면 두 사람 모두 높임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양반 가문의 경우에는 나이 든 세대나 젊은 세대 모두 부부간에 예사높임체의 경어를 사용하여 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높임의 정도는 조선 후기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채 양반이나 공손법을 사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고, 예사높임의 경어체가 많이 사용되었다. 나아가서 양반 부부의 경우도 때에 따라서 반말을 하는 사례도 보인다. 『재봉춘』(58쪽)에서 이참서가 부인을 부르며 “물어볼 말이 있으니 이리 좀 와”라고 반말을 사용한다.

부부간의 호칭도 부인은 남편을 그 직위로 부르고 남편은 ‘부인’ 혹은 부인의 성씨를 부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던 조선 후기(채백, 2014, 31쪽)에 비해 다양해졌다. 부인이 남편을 부르는 호칭으로는 양반 계층에서는 ‘영감’이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화의혈』, 385쪽과 387쪽; 『치악산』, 287쪽). 자식의 이름에 아버지를 붙여 부르는 경우는 신분에 상관없이 많았다(『치악산』, 313쪽; 『은세계』, 419쪽). 그밖에 ‘서방’이라고 부르는 사례도 양반이나 천민 계층에서 많이 나타났다(『빈상설』, 21쪽과 29쪽).

부인을 부르는 호칭도 직접 ‘부인’이라 부르는 사례는 거의 없었으며 직접 부를 때는

‘마누라’(『추월색』, 18쪽; 『재봉춘』, 49쪽)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제3자와의 대화에서 부인을 칭할 때는 ‘아내’라는 호칭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마누라’라는 호칭의 변화다. 조선 후기에는 이 호칭이 고관대작의 부인을 칭하거나 상대방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말로 사용(채백, 2014, 37쪽)되었지만 개화기에 오면 이 용어가 신분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정착되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개화기 부부간의 구두 커뮤니케이션에서 조선 후기에 비해 예법이 상당히 완화되었다는 사실은 봉건적 지배체제가 와해되면서 이를 뒷받침하던 유교적 가치관이나 윤리관도 약화되어 가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다.

② 부모와 자식 간

본 연구에서 분석한 소설들에서 자식들은 부모를 ‘어머니’, ‘아버지’로 부르며 깍듯한 경어를 사용하였으며 부모는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평어체로 대화하였다. 자식이 관직에 있을 경우에는 그 직위로 부르는 경우도 많았다. 『재봉춘』(31쪽)을 보면 어머니가 참서관으로 있는 자식을 ‘참서야’라고 부른다. 조선 시대에 많이 사용하였던 소자, 소인, 부친, 모친 등의 표현(채백, 2014)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장인, 장모와 사위 간에도 대등소이하였다. 장인이나 장모는 사위를 이름(『치악산』, 284쪽)으로 부르거나 관직(『재봉춘』, 81쪽)으로 호칭하였다.

출가한 딸을 부를 때는 시집의 성 뒤에 ‘집’이나 ‘실’을 붙여 부르는 호칭이 사용되었다. 『혈의누』(26쪽)를 보면 부녀간의 대화에서 아버지가 출가한 딸을 ‘김집야’라고 부르며 『재봉춘』(42쪽)에서는 부부간의 대화에서 시집간 딸을 지칭하며 ‘이실’이로 부른다.

조선 시대 『홍길동전』에서 나타났던 적서 차별의 양상도 신소설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치악산』(276쪽)을 보면 홍참의의 서녀, 남순이가 아버지에게 달려들며 ‘아버지’라 부르는 장면이 나온다. 이러한 양상은 개화기로 오면서 부모, 자식 간의 예법도 많이 완화되었으며, 적서의 차별도 마찬가지로 있음을 보여준다.

③ 형제간

형제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순위는 동생들에게 이름을 부르거나 ‘이애’라 하대하며 그 반대로는 누님, 형님, 오라버니 등의 호칭을 사용하였다. 『은세계』(456~458쪽)를 보면 옥순과 옥남 남매가 대화를 나누며 누나인 옥순은 ‘이애 옥남야’라고 이름을 부르는 반면 동생인 옥남은 ‘누님’이라 부르며 대화하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 형(『구마검』, 102쪽), 오라버니(『화상설』, 178쪽) 등 적합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형제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관직의 여부와 상관없이 나이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오늘날에는 형제간의 칭호가 남녀 간에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시 말해 남자가 손위의 남자 형제를 부를 때 형이라 하고, 여자 손위는 누나라고 부르지만 개화기 신소설에는 이러한 성별 구분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화의혈』(409쪽)에서처럼 자매간에 손위를 형이라 부르는 사례는 요즘에도 없지 않지만 여성이 손위 여성에게 누님이라 부르는 것은 오늘날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재봉춘』을 보면 주인공인 허씨부인이 시어머니의 조카인 숙희에게 ‘누님’이라 부르는 장면이 여러 차례(24쪽, 45쪽 등) 나온다. 친자매간은 아니지만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을 ‘누님’이라고 부르고 있어 현대의 용례와 다름을 알 수 있다.

형제간의 대화에서도 조선 후기에는 손아래는 깎듯한 경어를 사용하였지만(채백, 2014, 33쪽) 개화기에는 거의 평어체의 어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점에서도 예절과 격식이 많이 완화되었음을 보여 준다.

(2) 비혈연간의 커뮤니케이션

① 아는 사이

동년배의 친구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서로 이름을 부르거나(『은세계』, 417쪽) ‘자네’(『추월색』, 17쪽)라 칭하며 평어체로 대화를 나누었다. 신분 차이가 나는 경우는 아래 사람은 경어를 윗사람은 평어체를 사용하였으며(『재봉춘』, 22쪽) 신분이 낮은 친구를 존중해서 부를 때는 ‘노형’이라는 호칭(『화의혈』, 358쪽)을 사용하였다. 하인들이 대화에서 상전을 칭할 경우에는 ‘영감’이라는 호칭을 자주 사용하였다. 『구마검』(96쪽)을 보면 노파가 여주인공 최씨부인과 대화하며 남자 주인공 함진해를 칭하며 “마님, 인제는 걱정 마옵시오. 영감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라고 말한다. 앞에서 양반 계층의 부부 사이에서도 영감이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하였음을 고려하면 이 칭호는 관계나 신분을 초월하여 양반의 남자 어른을 칭하는 일반적 호칭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상대가 나이 많은 양반일 경우 ‘선생님’이라는 호칭도 사용되었다. 『구마검』(116쪽)을 보면 임씨 성의 지관이 남자 주인공 함진해에게 ‘선생님’이라 호칭하며 대화하는 장면이 나온다. 나이 어린 상전이 하인을 부를 때는 하인의 자식 이름 뒤에 아범(『화상설』, 188쪽)과 어멈(『재봉춘』, 68쪽)을 붙여 호칭하였다.

앞에서 부부 사이에 마누라라는 호칭이 조선 후기에 비해 훨씬 편하게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되었다고 지적하였지만 아는 사이의 대화 중 나이 많은 여성을 직접 칭하거나 상대방의 어머니를 칭할 때에도 이 마누라라는 호칭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여러 곳에 찾아볼 수 있다. 『치악산』(352쪽)을 보면 여주인공의 시어머니 김씨부인이 하인 남순, 옥

단과 함께 보살과 대화하며 보살을 ‘마누라님’이라 칭하며 “에그, 저 마누라님을 모셔오지 아니했더면 어찌할 뻔하였습니까”라고 말한다. 이외에도 『빈상설』(53쪽)과 『구마검』(92~93쪽)에서도 이러한 마누라라는 호칭이 사용되고 있다. 이를 볼 때 조선 후기에는 대가집의 여자 어른을 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던 ‘마누라’라는 호칭이 개화기에 오면 다양한 상황에서 나이 많은 여성을 존중해 주며 부르는 호칭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름에 씨를 붙여 사용하는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조선 후기 사례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지만 신소설에서는 여러 번 등장하였다. 『화의혈』(351쪽)을 보면 여주인공을 ‘선초씨’라 칭하며 『추월색』(47쪽)에서는 남녀 주인공 영창과 정임의 결혼식에서 정임의 외숙모가 연설을 하며 조카사위를 일컬어 ‘영창씨’라고 칭하는 장면이 나온다.

② 모르는 사이

모르는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신분의 차이가 가장 큰 변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신분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행색으로 신분을 추정하여 그에 맞춰 대응했던 것 같다. 『치악산』(403쪽)을 보면 친정으로 쫓겨난 흥참의 첩 김씨 부인이 동생 김생원과 함께 서울로 가는 도중 주막에 들러 김생원이 문짝을 치며 주인을 부르나 행색이 추레해 오히려 주모에게 타박을 받는 장면에서 다음과 같은 대사가 오고 간다.

“어, 이 꼴 같지 않은 것을 다 보겠구. 왜 혀 동강이 끊어졌나, 반말은 어따 하며 여보게는 누구더러 여보게야. 어젯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니, 어 별꼬라지를 구경하는군. 어서 다른 데로 가야.”

“응, 나도 주막장이더러 반말은 할 만한 사람이지. 설사 반말을 좀 하였기로 저리 볼 꼴 사납게 할 것이 무엇 있다구. 그래, 주막장이 명색하고 오는 양반을 쫓는 법이 어디 있노.”

별 것 아닌 걸로 보이는 사람이 반말하며 하는 꼴을 주모가 타박하자 양반인 김생원은 그럴만 하니 하지 않겠냐며 양반을 이리 쫓는 법이 어딴냐고 항변한다. 이를 통해 이 시기에도 양반은 주막에서도 신분 대접을 받았지만 워낙 행색이 초라해 주모에게 양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구박받았음을 알 수 있다.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 때는 ‘여보’라는 호칭이 자주 사용되었다(『추월색』, 27쪽; 『혈의누』, 15쪽). 초면에 상호 신분 확인은 주로 사는 곳과 성씨 등을 주고받았다. 『구마검』(121~122쪽)을 보면 남자 주인공 함씨가 최씨를 만나며 자신을 “서울 다동 사는 함일턱이

올시다"라고 소개하자 상대는 "네, 그러하시오? 나는 성은 최가고, 자는 옥여요. 무슨 일로 찾아계십더니잇가?"라고 응대한다. 서로 거주지와 성씨 등을 통해 자신을 알린다. 남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대문 앞에서 '이리 오너라'를 외치고는 사람이 나오면 "소안동 계신 서판서댁 서방님 오셨다고 여쭙어라"(*『빈상설』*, 34쪽) 하는 식으로 자신의 방문을 알렸다.

개화기에도 남녀유별의 풍습은 상당히 강하게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화상설』* (169쪽)을 보면 강에서 빠진 애경을 구해 준 권영철이 애경에게 "늬집 처녀인지 모르겠소 마는, 모르는 남자가 남의 집 처녀보고 말하는 것이 예(禮)가 아니나 이런 지경에 체면을 볼 수가 있소. 그런데 집은 어디요? 무슨 일로 물에 가 빠졌읍더니까?"라고 말을 거는 장면이 나온다. 이 대사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모르는 처녀에게 말을 거는 것이 예의에 벗어난다는 인식이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혈의누』* (52쪽)에서도 잘 드러난다. 여주인공 옥련의 집에 낮선 사람인 우체부가 등장하자 하인인 장팔 어미가 "웬 사람이 남의 집 안마당을 함부로 들여다보아. 이 댁에는 사랑양반도 아니 계신 댁인데, 웬 젊은 연석이 양반의 댁 안마당을 들여다보아"라고 언성을 높인다. 이 장면을 통해서도 개화기까지 남녀유별이 상당히 엄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문화권 간의 커뮤니케이션

개항으로 문호가 개방되면서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국민들의 외국 진출 사례도 생겨나면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화 교류의 초창기이며 그 폭도 극히 제한적이었기에 신소설에 나타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사례는 주로 언어의 차이로 인한 현상들이었다.

먼저 언어가 소통이 안 되자 필담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등장한다. *『추월색』* (57~58쪽)을 보면 백성들의 민란으로 뒤주에 갇혀 강물에 떠내려가던 김승지 부부는 중국인들에게 구조되어 왕씨를 만나게 된다. 말이 통하지 않자 "그중 어떤 사람이 지필(紙筆)을 가지고 와서 필담(筆談)을 하자고" 하여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혈의누』* (42쪽)에서도 우여곡절 끝에 일본을 거쳐 미국에 공부하러 간 여주인공 옥련은 미국에 도착하여 말이 통하지 않자 지나가는 청인을 붙잡고 필담을 시도한다. 한자를 해독하는 청인을 어렵게 찾아 필담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다.

통역을 통해 외국인과 대화하는 장면도 등장하였다. *『추월색』* (54쪽)에서 정임과 영창이 여행 중 부모를 극적으로 만나 부모를 살려준 은인인 중국인 왕씨와 만나는 장면에서는 그곳에 상당 기간 머물렀던 아버지 김승지가 통역을 맡아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다. 또한 뒤에서 상술하겠지만 『추월색』(45쪽)에서 정임이 일본에서 보낸 전보를 그 부모가 해독할 수 없자 일본어를 아는 사람에게 번역을 부탁하여 읽는 장면이 나온다. 이처럼 개화기에는 개항으로 사람들의 활동 범위가 단위 국가를 넘어 국가 간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발생하면서 개인적 차원에서도 필담과 통역, 번역 등의 새로운 기능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2) 집단커뮤니케이션

(1) 관청과의 커뮤니케이션

관청과 백성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상의하달과 하의상달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관청의 상의하달에서 조선 후기에는 하급 관리를 보내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으나(채백, 2014, 36쪽) 신소설에서는 일선 기관이 사람을 부르는 사례들이 등장한다. 『빈상설』(63~64쪽)을 보면 ‘갓두루마기에 메투리 신은 사람’이 오더니 “경무청에서 잠깐 물어볼 일 있다고 부르시니 갑시다”하며 여주인공을 데려 가는 장면이 나온다.

또한 이 시기 확대된 우편 제도를 통하여 백성들을 호출하는 사례도 등장하였다. 『추월색』(35쪽)에서 여주인공 정임에게 하루는 “누가 어떤 엽서 한 장을 주고 나가는데, 그 엽서는 재판소 호출장”이었다는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이 시기에는 근대적 사법 제도도 도입되었는데, 재판의 당사자 호출하는 데에 우편 제도를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의상달과 관련된 사항 즉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는 방법을 보면 먼저 승문고가 등장한다. 이는 잘 알려진 신문고의 다른 이름(김영재, 2010, 85쪽)으로서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소설 중 『빈상설』(18쪽)과 『화의혈』(370쪽)에서 모두 이 용어가 사용되었다. 모두 억울한 일을 당하여 답답한 심정을 주변 사람과 나누며 ‘승문고라도 친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신문고는 조선시대 하의상달의 상징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제 운영 면에서 일반 백성들이 이용하기에는 절차도 복잡하고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영주, 2007). 신소설에서도 실제로 승문고를 쳐서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보다는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중에서 억울함을 해소할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곤 하였다.

봉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앞의 두 사례에서 등장인물들의 대화에서는 승문고와 함께 ‘봉화라도 든다’는 표현도 함께 사용되었다. 이것도 역시 실제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하는 대화에서 사용되었던 것이다.

백성들이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는 그 밖의 방법으로 원정(原情)과 발활(白活)²⁾이 등장한다. 『화의혈』(360쪽)을 보면 전라도 시찰사가 기생 선초에 욕심을 품으나 말을 잘

안 듣자 그 아버지에게 동학 혐의를 씌운다. 청천벽력 같은 상황에 닥치자 주변의 이웃들이 팔순 노모에게 “이시찰 앞애가 원정을 해보십시오”라고 권한다. 발괄의 경우도 비슷하다. 하녀 복단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은 그 부모들은 “눈이 뒤집혀서 경무청으로 재판소로 돌아댱기며 원수 갚아달라고 발괄(白活)을 하며”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 사례들에서 보듯이 원정과 발괄은 억울한 사정을 당한 당사자들이 지방 관청을 상대로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며 해결해 달라고 청하는 방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

1895년 3월에 단행된 을미개혁에서 재판소구성법이 제정됨으로써 행정과 사법이 처음으로 분리되어(이만렬, 1985, 166쪽) 근대적 사법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신소설에서는 재판과 관련된 장면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추월색』(48쪽)에서는 사기로 소송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며 앞서 인용한 『빈상설』(63~64쪽)에서는 경무청의 호출을 받아 ‘정장(呈狀)을 했나보다’하며 고소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빈상설』(54~55쪽)에는 악행을 일삼는 인물을 일컬으며 “경무청에다 정(呈)하여 청(靑)바지를 입혀야지”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정’한다는 것은 고발을 의미하며 ‘청바지’란 오늘날의 청바지가 아니라 푸른색 옷 즉 죄수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근대적 사법 제도가 도입되면서 백성들의 생활 방식과 커뮤니케이션에도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초창기이다 보니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지는 못하였고 아직 전통적인 방식도 잔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양반 가문들의 경우는 자체의 율문을 통해 징벌 권을 가지고 집안의 하인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적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치악산』(369~370쪽)을 보면 당시의 사법 제도 현실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법률이 있는 시대 같으면, 동리 백성은 고사하고 집안 하인배라도 치죄할 일이 있든지 심문할 사건이 있으면 소관 법사에 고소를 하여 죄지경중을 따라 조울을 할 터이나, 이때는 법률이 아직 발달이 못되어, 다만 양반의 시대라, 집집마다 감옥서 경무청을 설치하여 두고 자기 집 하인은 말고, 동리 백성이라도 걸려만 들면 행랑구류라. ... 홍참의는 경무청 신문과장 대판에 재판소 검사 직무를 겸대하였는지 지필을 들고 앉아서 죄인들의 공사를 받은 후에 상당하게 치죄를 하고 다시 선고를 내는데, 그 선고 사유는 대전통편과 형법대전에 참고한 것도 아니오, 자기 소견대로 작성한 율문이라. ... 이 모양으로 훈령 비스름이 되지않게 써서 여러 죄인을 원주 읍내로 보내고...(후략).

2) 한자 표기는 이두식 표기로서 원작에 나온 그대로이다.

가문 내에서 자체적인 징벌 체계에 따라 죄에 대한 벌을 내리고 하였다는 것이다. 새로운 사법 제도의 발달이 미흡하여 양반 가문이 사법권까지 갖는 전통적 방식이 공존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전통과 근대의 공존은 상의하달뿐만 아니라 하의상달의 측면에서도 나타났던 것을 알 수 있다. 전술한 대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재판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방식이 시작되었지만 전통적인 원정이나 발괄의 방식도 함께 사용되었던 것이다.

(2) 마을 공동체 내의 커뮤니케이션

마을에서 중대한 일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모여 들어 이에 대해 정보와 의견을 나누는 형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 예컨대 마을의 중요 인물이 사망하면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이 망자의 사망이나 배경에 관해 정보와 의견을 나누며 여론이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화의혈』(393쪽)을 보면 기생 선초가 관리에게 농락당하고 자살하자 “그 집 안 상하·노소와 이웃집 남녀·친지가 모두 모여와서 그 광경을 보고 흑흑 느껴가며 눈물 아니 내는 사람이 없”었다고 묘사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그 억울한 죽음을 함께 슬퍼하였다는 것이다. 『은세계』(440쪽)에도 남자 주인공 최병도가 죽자 “죽은지 칠일 만에 장사를 지내는데, 인근 동 사람들까지 남의 일 같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제가 당한 일 같다하여 회장(會葬) 아니오는 친구가 없고 부역 아니오는 백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모두 모여 장례의 품앗이를 함께 나누는 것이다.

마을에서 굿을 하거나 혼례를 치를 때도 마찬가지였다. 『구마검』(97쪽)을 보면 지나치게 무속에 의존하는 최씨부인이 굿을 벌이자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이 그 집안의 내력에 대해 이것저것 수군거리는 장면이 나온다. 혼례가 치러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빈상설』(83쪽)을 보면 남녀 주인공이 혼례를 치르는 장면에서 “원근 동리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신기하니 희한하니 하며 구경군이 구름같이 모여 섰”다고 묘사하고 있다. 한편 여주인공이 갑자기 일본으로 도망감으로써 예정된 혼례가 취소된 『추월색』(43쪽)에서는 “안손·바깥손·내하인·남의 하인 할 것 없이 모두 이 구석에도 몰려서서 수군수군, 저 구석에도 몰려서서 수군수군” 하는 장면이 나온다. 뜻밖에도 혼례라는 중대사가 취소되는 일을 당하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 여러 가지 정보와 의견을 나누게 된 것이다.

마을에서 중대하거나 기이한 일이 생기면 이에 대한 소문이 확산되어 간 사례도 신소설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였다. 『치악산』(360쪽)을 보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홍참의는 실의하여 여기저기 떠돌다가 어느 산골에서 만난 노부부로부터 자기 집 일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다. 홍참의는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인 걸 모른 채하고는 어디서 그리 자세히

들었냐고 묻자 “허허, 그 덕 일은 저 뿐 아니라 원주 일경 사람 명색하고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읍니까”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아무 상관도 없는 산골의 노부부에게까지 소문이 퍼져 나갔던 것이다.

소문이 퍼져 나가면서 와전되는 사례도 등장하였다. 『은세계』(429~430쪽)를 보면 최병도의 재산을 탐낸 관찰사가 그를 감옥에 가두자 그 부인과 딸이 안타까움에 울고 있는데, 이를 본 몇몇 사람에게 의해 소문이 퍼져 나가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모녀가 마주 붙들고 우는 소리에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울음소리를 듣더니, 최병도가 죽었다는 기별을 듣고 우는 줄 알고, 최병도가 죽었다고 영절스럽게 하는 말이, 한 입 건너 두 입 두 입 건너 세 입, 그렇게 온 동네로 퍼지면서 말이 점점 보태고 점점 와전이 되어, 회오리바람 불듯 뱅뱅 돌아돌고 돌아돌아서 한 사람의 귀에 세 번 네 번을 거꾸 들리며, 사람마다 그 말이 진적(眞的)한 소문인 줄로 여겼더라.

단편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그럴 듯하게 스토리를 구성하여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어 가면서 와전된 사실이 퍼져 나갔다는 것이다. 『은세계』에서는 이 소문을 듣고 이웃 마을의 할머니가 문상을 오는 장면까지 이어진다.

이와 같은 소문의 전파는 공간적으로 멀리까지도 퍼져 나갔던 것 같다. 『화의혈』(358쪽)을 보면 기생 선초에만 빠져 있어 업무상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시찰은 “아무 성적 없는 소문이 서울에 올라가기곤 하면 오직 나를 미타히 여길라구?”라고 걱정한다. 아무 일도 안 했다는 소문이 서울에까지 확산될 것을 염려한 것이다. 이시찰의 악행으로 기생 선초가 자결하였다는 소문은 서울까지 퍼진 것으로 묘사되었다(『화의혈』, 352쪽). 한편 『혈의누』(23쪽)에도 평양에서 벌어진 난리의 소문이 부산에 사는 사람에게까지 퍼져 나간 것으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소문은 ‘발없는 말 천리간다’는 속담과 같이 공간적으로 아주 멀리까지 퍼져 나가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마을에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모아 놓고 여론을 환기시키며 힘을 모아 공동 대처를 모색하기도 하였다. 『은세계』(415쪽)를 보면 주인공 최본평을 원주 감영이 무고하게 잡아들이자 그 친구 김치일이 나서 동네 사람을 소집하여 힘을 모아 민란을 일으키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이에 천쇠야, 너 지금내로 이 동네 백성들을 뿔이 되든지 빨리 모아 데리고 오너라.”

하는데, 천쇠는 어젯밤에 장차들에게 얻어맞던 원수를 갚는다 싶은 마음에 신이 나서 목청

이 떨어지도록 소리를 지른다.

“아랫 말 김진사택 서방님께서 동네 백성들을 모으라신다. 빨리 모여들어라.” (중략)

일 없는 농꾼들이 최본평집에 영문 장차가 나와서 야단을 친다 하는 소리를 듣고 구경을 하러 왔다가 장차가 못 들어오게 하는 서슬에 겁이 나서 못 들어오고 이웃 농꾼의 집에 들어앉아서 까마귀 떼같이 지껄이고 있는 터이라.

마을 사람들이 모여 들어 최본평이 억울하게 잡혀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성토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민란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개화기에도 주막은 마을 공동체뿐만 아니라 외지의 정보까지 소통할 중요한 채널이 되었다. 주막은 “팔도 모산지배(募散之輩)가 다 모여 자는”(『은세계』, 439쪽), 즉 각지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이에 따라 정보도 모이고 흩어지곤 하는 것이다. 『화상설』을 보면 간악한 기생첩 평양집에게 억울하게 죽거나 쫓겨난 사람들의 원을 풀어주기 위해 나선 사람들이 그 평양집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객주집에 방을 얻어 묵는 방안을 논하는 장면이 나온다(204쪽). 이처럼 주막집은 마을 공동체를 넘어서 광범위하게 정보가 유통되는 채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신소설에서는 가문의 중대사를 논하기 위해 종친회를 소집하는 사례도 등장하였다. 『구마검』(129~135쪽)에서는 종손 함진해의 셋째 부인 최씨가 연일 곱판을 벌이느라 종가집 가산이 탕진될 지경에 이르자 사촌동생 함일청이 나서 전국 종친회를 열도록 한다. 통문으로 각도의 종씨들에게 알렸으며 모여서 의결할 때에는 “차례로 가부표를 받아 종다수 취결하는” 방식 즉 다수결에 따라 결의하였다. 통문은 조선 시대에 주로 지방 향교나 종중이 공동 관심사나 의견 등을 대량으로 필사 복제하여 많은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공론을 일으키게 한 것(김세철·김영재, 2000, 53쪽)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다수결에 의해 결의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물론 당시 신분이나, 연령, 서열 등 엄격한 제약 속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시에는 한계가 많았겠지만 적어도 외형적으로 다수결이라는 민주적인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은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3. 개화기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1) 편지

조선 시대에도 비록 문자 해독층에 한정되기는 했지만 편지가 원거리 커뮤니케이션의 중요 수단이 되었다(채백, 2014). 개화기에는 근대적 우편 제도가 도입되면서 편지는 더욱 활성화되었다. 근대적 우편 제도는 1882년 우정사가 설치되었다가 1884년 우정총국으로 확대 개편하려 하였으나 갑신정변이 실패하면서 중단되었다. 이후 1894년 갑오개혁에서 본격 도입되었다. 1895년의 개혁에서 농상공부가 설치되고 「국내우체규칙」이 반포되면서 전국 주요 지점에 우체사가 설치되어 우편 사업이 재개될 수 있었다(채백, 1995, 153~154쪽).

이 우편제도는 신소설이 발표된 1910년 전후한 시기에는 상당히 정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편지에 대한 의존이 높아서 신소설에 빈번하게 등장하며 당시 원거리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편지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부고도 우편으로 하고(『은세계』, 453쪽) 재판의 호출장도 우편으로 전달되었다(『추월색』, 35쪽).

새로운 제도로 등장함에 따라 여러 가지 새로운 현상들이 신소설에서 등장하였다. 먼저 우표와 우체통이 등장하였다. 『재봉춘』(45쪽)을 보면 여주인공이 친정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쓰고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우표까지 붙였으나, 지수궁 다리에 있는 우표통에 갖다 넣을 사람이 없어 또 한탄이 나온다”는 대목이 나온다. 여기서 우표통이란 우체통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편지를 써서 우표를 붙이고 우체통에 넣으면 배달해주는 운영 방식이 이때부터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편지를 전해 주는 우체부도 등장하였다. 그 명칭은 우체사령(『혈의누』, 51~52쪽; 『추월색』, 43쪽), 체전부(『혈의누』, 51~52쪽; 『재봉춘』, 48쪽, 50쪽; 『추월색』, 38쪽), 『우편군사』(『혈의누』, 51쪽) 등으로 혼용되었다. 특히 『혈의누』(51~52쪽)에서는 한 장면에서 이 세 가지 용어가 다 등장한다. 서술자의 시점에서는 ‘우편군사’라 하고 우체부 본인은 ‘체전부’, 편지를 받는 사람은 ‘우체사령’이라 칭하고 있다. 이 장면에서는 당시 우체부의 복장과 행동을 “우자 쓴 병거지 쓰고 감장 홀태바지 저고리 입고 가죽 주머니 메고 문밖에 와서 안중문을 기웃기웃하며 편지 받아 들어가오. 편지 받아 들어가오. 두세 번 소리하는 것은 우편군사라”고 묘사하고 있다. 제복에 ‘우’자를 쓴 모자를 쓰고, 제복을 입고 편지가 든 가죽 가방을 메고 다니며, 집 앞에서 편지 받아 가라’고 소리치며 배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편지의 배달을 위해서는 주소도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추월색』(19쪽)에서 집안끼

리 장래 결혼을 약속한 영창이 부친의 지방 발령으로 떠나게 되자 정임은 자기 사진을 주며 뒤에 ‘경성 중부 교동 339’라고 주소를 적어 준다. 사진을 건네면서 정임은 이것이 자기 집 ‘통호수’라며 사진을 잃어버리더라도 339만 기억하라고 당부한다. 나중에 소식이 끊어졌다가 영국으로 가게 된 영창이 이 주소로 편지를 부치게 된다(『추월색』, 38쪽). 그러나 정임의 집이 화재로 소실되어 영창의 편지는 반송되었다. 영창이 정임의 아버지가 근무하던 시종원으로 보낸 편지도 반송되었다. 『추월색』(38쪽)은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사오 개월이 지난 후에 그 편지 두 장이 한꺼번에 돌아왔는데, 쪽지가 너덧 장 붙고 ‘영수인이 무하여 반환함’이라 썼으니 우편이 발달된 지금 같으면 성안에 있는 이시종 집을 어떻게 못 찾아 전하리요마는, 그때는 우체 배달이 유치한 전한국통신원 시대라, 체전부(遞傳夫)가 그 편지를 가지고 교동 삼십삼통 구호를 찾아가매 불이 타서 빈 터 뿐이요, 시종원으로 찾아가매 이시종이 갈려버린 고로 전하지 못하고 도로 보낸 것이라.

주소가 바뀌어 수취인이 없으므로 이를 반송된 사실을 논하며 우편 서비스의 시간적 차이를 언급하고 있다. 『추월색』이 발표된 것은 1912년이고 이 소설의 배경은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술한 대로 우편 제도도 정착되고 남녀 주인공이 각기 영국과 일본으로 유학도 가는 등의 상황으로 미루어 소설의 발표 시점과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소설들에서는 당시 편지의 전달에 걸린 시간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도 보인다. 『재봉춘』(50쪽)을 보면 여주인공 허씨부인의 친정아버지 백성달이 보낸 편지를 딸이 받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성달이 곧 장지 밖에 나왔아서 그 사연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즉시 안동 사거리 우표통에 갖다가 넣었더라. 이날 저녁때 칠녀가 행랑 하인을 부르러 대문간에 나와 섰더니 체전부가 편지 한 장을 떨어뜨리고 가는데, 편지 겉봉을 보니 허씨부인에게 온 것이 분명한지라, …

편지를 부친 시각은 명기 안 되어 있지만 아무튼 그날 저녁 때 봤다는 것은 당일 배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성 내에서는 이렇게 당일 배달도 가능했음을 보여 준다. 『독립신문』 창간호부터 초기의 광고란을 보면 ‘우체시간표’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당시의 우편 사정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를 보면 한성 내에서는 “모히는 시간 오전 칠시 십시 오

후 일시 스시 전후는 시간 오전 구시 경오 십이시 오후 삼시 륝시"라고 공지하고 있다. 하루에 4회씩 수집과 배달을 한다는 것이다. 시점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아침에 부친 편지가 한성 내에 당일 저녁까지 배달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혈의누』(53쪽)를 보면 미국에 편지가 전달되는 데 걸린 시간을 알 수 있다. 여주인공 옥련이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갔다가 한국의 부모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부쳤던 날은 광무 육년(음력) 칠월 십일일인데, 부인이 그 편지 받아보던 날은 임인년 음력 팔월 십오일이러라”고 서술하고 있다. 광무 육년이나 임인년 모두 1902년이다. 7월 11일에 부친 편지를 8월 15일에 받아 보았으니 한 달 4일이 걸린 것이다. 배편으로 전달되었을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개연성이 높은 서술로 볼 수 있겠다.

이렇듯 근대적 우편제도가 상당히 정착되었지만 여전히 사람에 의해 편지를 전달하는 전통적 방식도 남아 있었다. 『빈상설』(13쪽)을 보면 하인 부부가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남편이 주인 어른의 편지 심부름을 자신이 늘상 했다고 말한다. 『화상설』(161쪽)과 『치약산』(286쪽)에도 하인이 편지를 전하는 장면이 나온다. 『재봉춘』(25쪽)에서는 하인을 통해 편지를 직접 전달하면서 ‘바로 답장을 해달라’는 말까지 전달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하인은 바로 답장을 받아서 전달하였다.

편지의 사용이 늘어나다 보니 하인 계층까지 편지를 쓰는 장면도 등장하였다. 『재봉춘』(33쪽)을 보면 곤경에 처한 여주인공 허씨부인을 도우려고 그 하인 계순이가 자신이 반지를 훔쳐 간다며 편지를 남기곤 종적을 감춘다. 하인 계순이 문자를 알기는 쉽지 않은 당시 상황이었겠지만 그만큼 편지의 사용 계층이 확대되었음을 말해 준다고 볼 수 있다.

2) 사람

근대적 우편 제도가 정착되어 그 이용이 대폭 증대되었지만 사람을 보내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통적인 방식도 사용되었다. 앞서 서술한 편지를 사람이 전달한 사례 외에 편지를 쓰지 않고 직접 사람을 보내 구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도 사용되었다. 『치약산』(287쪽)을 보면 사돈이 아들을 일본에 보냈다고 원망하는 흥참의가 하인을 사돈댁에 보내어 아들을 찾아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하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네 이 길로 다시 서울 가서 이판서 대감께 댁 서방님 찾아보옵시사 하여라. 나는 편지 하기도 싫다. 네가 가서 이판서 대감을 뵈고 지금 네가 듣고 본대로 한 마디 빼지 말고 말하여라.” 원주에서 서울로 하인을 보내 메시지를 직접 전달토록 한 것이다.

멀리 메시지를 전할 때에는 하인이 아니라 이를 전문으로 하는 급주(急走)를 보내기도 하였다. 『은세계』(430~431쪽)에서 남편이 죽었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된 여

주인공 최부인이 여기 저기 소식을 전하며 “그때는 밤중이라 감영으로 급주(急走)를 띄어 보내더라도 대관령 같은 장산(長山)을 사람 하나이나 둘이나 보내기는 염려된다 하여 장정 사오인을 뽑아 보내려 하는데”라는 대목이 나온다. 긴급을 요하는 메시지를 멀리 전할 때 이 급주를 이용하였던 것이다. 사람을 시켜 부고를 전한 사례도 등장하였다. 『구마검』(103쪽)을 보면 “급상(急喪)을 당한 후 부고를 전인(專人)하여 보냈더니”라는 장면이 나온다. 갑작스러운 상을 당하여 이를 알리기 위해서 사람을 직접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양반이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조금 앞서 ‘선성’이라 불리는 사람을 보내서 방문 사실을 미리 알리는 관습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치악산』(392쪽)에서 양반이 사위집을 방문하는데 “하루는 대문 밖에서 인력거 소리가 푹푹 나며 재동 이판서의 오는 선성이 들어오는지라. 흥정식은 급히 사랑 중문 밖에 나와서 그 장인을 영접하였다”는 것이다. 양반이 목적지에 거의 도착하면 하인이 몇 걸음 앞서 달려가서 그 집에 방문 사실을 알려 마중 나오게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문서

조선 후기 이후 문자문화의 기반이 점차 확대되어 개화기에는 문서의 사용이 더욱 보편화되었다. 결혼식이나 기타 모임의 경우도 문서를 보내 모임을 알리고 초대하는 풍습이 등장하였다. 『추월색』(46쪽)을 보면 주인공 영창과 정임의 결혼식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준비해 가는 과정을 그리며 “일변은 친척·고우(故友)에게 청첩을 보”낸다고 묘사하였다. 가까이 있는 일가친척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친지들에게도 우편을 통해 청첩장을 보내 결혼식을 알리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추월색』(30쪽)에는 여주인공 정임이 일본 유학 시절 모임의 안내와 초대를 받는 장면을 “어떤 여학도(女學徒)가 무슨 청첩을 가지고 와서 아무쪼록 오시기를 바란다”고 간곡히 말하고 가는데, 그 청첩은 〈여학생 일요강습회 창립 총회〉 청첩이었다. 학생들 모임의 창립 총회에 청첩장을 보내 초대한 것이다. 우편을 통한 문서의 사용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자문화의 기반이 확대되면서 문자를 해독하는 계층이 천민에까지 확대되었음을 보여 주는 장면도 등장한다. 『치악산』(365~366쪽)에서 주인공 홍참의가 또 후취를 들이려 하자 첩 김씨부인이 하인들과 짜고 계략을 꾸미자 이를 하인 금돌이가 홍참의에게 알려 주는 대목에서 “백지 반 토막에 군두목 언문으로 가뜩이 쓴 것을 두 손으로 받들어 올리며” “소인이 여기까지 대령하온 곡절은 예다가 대강 기록을 하였사오니, 영감마님 처분대로 합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고한다. 하인 금돌이가 일의 진행 과정을 한글로 적어 상전에게 알려 주었다는 것이다.

물론 천민 계층에 문자 해독 능력이 과연 어느 정도나 가능했는지를 알려 주는 자료는 없지만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독립신문』 창간 논설에서 ‘상하귀천이 다보게 하기’ 위하여 국문을 쓴다고 표방한 것을 필두로 당시 전체 국가의 근대 개혁을 위해 국문 사용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많았으며(조동일, 2005, 247~254쪽) 이에 따라 국문 해독층도 점차 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재봉춘』(15쪽)에도 “복월이와 칠녀도 심심하여 소설책들을 보는데”라는 대목이 나온다. 하녀들이 낮에 집에 일이 없는 시간에 심심풀이로 소설책을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개화기에는 문자 문화의 기반이 확대되면서 일부 노비층도 국문을 익혀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에는 서구의 구두 문화 시대와 달리 문서를 증거로 삼는 문화가 존재하였는데(채백, 2014) 개화기에도 이러한 풍습은 여전하였다. 『화의혈』(379쪽)에서 이시찰이 기생 선초에게 수청을 들라고 요구하자 선초는 하룻밤 수청으로 끝날 것을 염려하여 이시찰에게 친필로 문서를 요구하며 “육례 갖추는 혼인 아닌 바에 혼서지(婚書紙) 여부는 없지만는 다만 글 한 자라도 이 다음 증거될 만한 것을 하여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메시지를 보낸다. 이에 이시찰은 친필로 쓴 문서를 보내고 선초와 하룻밤을 보낸다. 그 다음날 이시찰은 도장 찍는 것을 잊어 버렸다며 “약증서를 아니하였으면 모르거니와 기왕 한 이상에 도장을 쳐야 확실 증거가 될 터인데 마침 도장을 아니 넣고 왔구나. 그것을 내가 가지고 가서 도장을 쳐서 곧 보내주마”라며 그 문서를 다시 가져가서는 모른 체 해버리고 말아 결국 선초를 자살에 이르게 만든다. 여기서 우리는 문서를 남기는 것이 확실한 증거로서 기능하였으며, 여기에 더해 도장³⁾을 찍음으로서 그 책임 소재와 공신력을 높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또한 『화상설』(212~214쪽)에서도 무속에만 의존하며 집안에서 악행을 일삼은 평양댁을 징벌하기 위해 무당을 동원하는데, 그 무당은 평양댁에게 “치성 드리는 이가 이 세상에 나온 후로 털끝만치라도 잘못된 일을 정(淨)한 백지에다 나란히 써서 회과하는 모양으로 소지를 올려야지 소원이 얼른 성취가 된다”며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기록하게 만든다. 그 문서를 증거로 평양댁을 경찰에 고발한다.

이와 같이 문서에 의한 기록을 더 신뢰하는 문화는 서구의 구두 커뮤니케이션 시대와는 구분되는 특징이다. 인쇄술이 보편화되기 이전의 중세 서구에서는 문서보다 구두의 증언이 더욱 신뢰되었다고 한다. 문서는 얼마든지 위조될 수 있는 것이기에 살아 있는 증인

3) 도장을 사용한 사례는 이밖에도 『빈상설』(19쪽)과 『추월색』(42쪽)에도 등장한다. 도장의 사용이 상당한 정도로 보편화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나 신표 같은 상징물이 더 신뢰되었다는 것이다(Ong, W., 1982/1995, 148~150쪽; Burke, J., 1985/1996, 51~52쪽). 이처럼 구두의 커뮤니케이션보다 문자로 기록한 형식이 더 신뢰되었다는 사실은 서구와 달리 한국에서는 문자 중심의 문화가 서구보다 훨씬 더 뿌리 깊고 오래되었음을 보여 준다.

4) 전보와 전화

이 시기에는 또 다른 새 매체로서 전보와 전화가 등장하였다. 전보는 부분적으로 생활에 도입되어 이용되었으며 전화는 생활에 이용되지는 않았지만 그 존재는 알려지게 되었다. 전보는 그 기술적 특성대로 원거리에 급하게 메시지를 전할 때 이용되었다. 『추월색』(42쪽)에서 여주인공 정임이 집을 떠나 먼 곳에 가서 학문을 배워 오겠다는 글을 부모님께 남기고 떠나자 필시 일본으로 갔을 것이라고 추정한 그 아버지는 부산의 경찰서에 딸을 잡아 달라고 외모와 옷차림 등을 알리는 전보를 보내고는 바로 부산으로 출발한다.

개화기 한국사회에서 전보는 우편보다도 앞서 도입되었다. 전술한 대로 우편의 도입이 갑신정변의 실패로 지체되었지만 전보는 중국과 일본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1884년에 서로 전선이, 1888년에는 남로 전선이 설치되었으며 1891년에는 북로 전선도 설치되어 전신 네트워크의 기본 틀이 만들어진 것이다(윤상길, 2007, 111쪽).

당시의 전보는 외국과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치악산』(389~390쪽)의 남주인공 백돌은 장인의 영향을 받아 일본 유학을 떠났는데, 이에 불만을 느낀 아버지 홍참의가 전보를 보내 아들을 귀국시키는 장면이 나온다. 한편 『추월색』(45쪽)에도 일본에 간 정임이 부모님께 전보를 보내는데 부모가 받아 보니 “전문은 모두 꾸불꾸불한 일본국문이라”는 것이다. 전술한 대로 남로 전선이 해저케이블을 통해 일본과 연결됨으로써 일본과 전보의 소통이 가능했던 것이다.

개화기의 전보도 우체부가 집으로 배달해 준 것으로 보인다. 『추월색』(45쪽)을 보면 딸 정임이 일본에서 보낸 전보를 받는 장면에서 “전보 들어가오, 전보 들어가오” 하는 소리가 들려 나가서 전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전보라는 테크놀로지가 지역간의 메시지 전송은 전기/전자 미디어에 의하더라도 이용자에게 그 텍스트를 직접 전달하는 것은 배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윤상길, 2007, 100쪽).

한편 본 연구에서 분석한 신소설에서 전화를 직접 이용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전화가 매우 편리하고 신속한 연락 수단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재봉춘』(45쪽)을 보면 시댁에서 여러 가지로 곤경에 처해 친정 부모와 연락하고자 하나 편지도 시댁 식구들 눈치가 보여 여의치 않아 하는 여주인공 허씨부인이 “편지를 써만 놓고 가만히 앉았으

면 저절로 가지나, 요새는 전화라는 것이 있어 서울 앉아서도 부산 있는 사람과 말을 통하는 시절에 한성중 안에 있어 편지 하나 서로 통키도 이렇게 어려운가"라고 한탄한다. 친정 부모들과 급히 연락은 해야 하는데 편지 부치는 것은 시대 사람들 눈치가 보여 조심스러워 하면서 내뱉은 말이다. 전화를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먼 거리에도 편하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수단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전화가 한국 사회에 도입된 것은 1898년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덕수궁을 중심으로 궁의 각 부를 10여 대로 연결하였다고 한다. 일반 공중이 사용할 수 있는 전화는 1902년에 개설되었지만 그 요금이 워낙 비쌌다. 당시 관청 고용원의 일당이 80전임에 비해 전화 요금은 5분간 50전이었다고 한다. 요금이 비싸기도 하였지만 당시의 일반인들로서는 전화를 걸려 해도 걸 데도 없던 상황이었다(강준만, 2009, 58쪽). 1912년경 전화의 보급은 총 8,961대로서 그 중 조선인 명의로 가입한 것은 483대에 불과했다고 한다(윤상길, 2007, 107~117쪽). 이러한 상황에서 전화의 사용은 어려웠지만 그 존재와 편리함에 대한 인식은 점차 확산되고 있었던 것이다.

5) 책

개화기에도 책은 교육과 여가의 수단으로 여전히 활용도가 높았다. 양반 집에는 상당한 양의 책을 소장하면서 여러 용도로 읽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치악산』(282쪽)에서 양반 집 부자간에 대화하는 중에 “우리 집에도 볼 만한 책이 그득”하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화의혈』(395쪽)에서도 최호방이라는 양반의 집을 묘사하면서 “탁자 위 만권 서책에는 먼지가 쳐로 앉았는데 이 갈피 저 갈피 질러둔 표지는 저 읽던 흔적이 완연”하다는 대목이 보인다. 집안에 많은 책을 소장하면서 이 책 저책 반복적으로 읽었던 것이 양반들의 일반적인 독서 행태였다고 할 수 있겠다.

문자를 해독하는 양반들의 취미 생활로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이 책 읽기였다. 『재봉춘』(45쪽)을 보면 양반집의 어느 날의 정경을 “사랑에서는 이참서가 친구와 바둑을 두는 모양이오, 안방에서는 시어머니 혼자 언문책을 보는 모양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한글 책 읽기가 여성들의 취미 생활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도 책 읽기는 여전히 낭독이 대부분이었다. 앞서 인용한 『재봉춘』(48쪽)에서 집안의 광경을 묘사하며 “안방에서는 책보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대목이 나온다. ‘책보는 소리’라는 표현은 책을 낭독하였음을 말해 준다. 인쇄매체가 확산되어 가면서 소리 내지 않고 읽는 묵독이 정착하게 된다. 마에다 아이(前田愛, 1973/2003)는 이러한 낭독에서 묵독으로의 전환을 근대적 독자 탄생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개화기

한국 사회는 인쇄매체가 아직 보편화되지 못하여 소리 내어 책을 읽는 관행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보다 인쇄매체의 도입과 보급에서 앞선 일본의 경우도 나가미네 시게토시의 연구(2005/2010)에 의하면 묵독과 음독이 공존하다가 도서관이나 열차와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독서가 늘어나면서 묵독이 점차 확대되며 보편화된다는 것이다. 나가미네에 의하면 명치 40년대 즉 1907년 이후에 들어서면서 음독이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이 되고 묵독이 점차 보편화되어 간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를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신소설들이 발표된 1910년 전후는 아직 묵독이 확산되기 이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개화기의 책과 관련하여 특기할만한 점은 당시 사회의 개화에 대해 개화파와 위정척사파로 양대 세력이 갈렸듯이, 개인적 차원에서도 개화 서적을 둘러싼 견해와 입장의 차이가 드러난다는 점이다. 『치악산』(282~283쪽)에서 주인공 백돌과 그 아버지 흥참의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이에 백돌아, 너는 요새 글 한 자 아니 읽고 왜 편편히 노느냐?”

“요새는 좀 보는 책이 있습니다.”

“응, 보는 책이 무엇이란 말이나. 쓸데 없는 책 보지 말고 다만 한 자를 보더라도 경서를 읽어라. 그래, 네 소위 본다는 책은 무엇이냐?”

“해국도지를 얻어다가 봅니다.”

“해국도지, 해국도지, 해국도지가 무엇이냐. 책을 보려 하면 우리 집에도 볼 만한 책이 그 득한데, 해국도지를 빌려다가 본단 말이나. 이에, 너도 개화하고 싶으냐. 어, 저 자식이 서울 몇 번을 갔다오더니 사람 버리겠구.” (중략)

“이에 백돌아, 집안에 못된 책 얻어들이지 말고 오늘부터 맹자를 읽든지 논어를 읽든지 하여라.”

개화에 뜻을 두고 『해국도지』를 읽는 아들을 못마땅하게 여겨 그 부친이 나무라면서 ‘못된 책’ 읽지 말고 경서를 읽으라고 강권하는 장면이다. 『해국도지』는 청나라의 위원(魏源)이 아편전쟁에서의 패배를 계기로 저술한 책으로서 세계 각국의 지리와 역사를 비롯해서 서양 문명의 다양한 측면을 정리, 소개하여 개화파들에게 서구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광린, 1969, 2~4쪽). 이러한 책이 소설에도 등장하면서 한 집안의 부자간에도 개화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드러내며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6) 신문

개화기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무엇보다도 특징적인 새 매체는 바로 신문이다. 1883년 『한성순보』가 창간되면서 근대 신문의 시대가 막을 연 이래 개화기에만도 여러 신문들이 창간되면서 신문이 새로운 사회 문화적 제도로 정착되어 갔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신소설들에서도 신문이 등장인물들의 생활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재현되었다.

우선 신문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한 정보를 얻는 매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려졌다. 『은세계』(459쪽)를 보면 우여곡절 끝에 미국 유학을 가게 된 주인공 최옥남은 신문을 통해 고국 소식을 알게 되는 장면이 나온다. “일로(日露)전쟁 이후로 옥남이가 신문만 정 신들여 날마다 보는데 신문을 볼 때마다 속만 터진다. 어찌하여 그렇게 속이 터지는고? 옥남의 마음에 우리나라 일은 놀부의 박 타듯이 박은 타는데 경만 치게 된 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에 의해 국권을 빼앗겨 가는 과정을 신문을 통해 알게 되면서 이를 놀부 박 타기에 비유하며 걱정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은세계』(462쪽)에서는 뒤이어 미국 신문에 ‘한국 대개혁’이라는 제목으로 고종의 강제 폐위 사실이 보도된 것을 읽고는 옥남과 옥순 남매가 당시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장면도 등장한다. 이처럼 개화기의 백성들도 신문을 통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의견을 갖게 되며 주변 사람들과 정보와 의견을 나누곤 하였음을 보여 준다.

신문의 보도가 계기가 되어 후속 행동이 이어지면서 개인의 구체적 목적을 달성한 사례도 등장하였다. 헤어져 소식을 모르던 가족이 신문의 보도를 계기로 찾아 나서면서 만나게 된 것이다. 『혈의누』(43~48쪽)에서 청일전쟁의 와중에 부모를 잃고 일본인의 손에 이끌려 일본에 갔다 다시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여주인공 옥련이 고등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했다는 소식이 워싱턴 지역 신문에 기사화되었다. 이를 마침 미국에 가 있던 그 아버지가 보고는 수소문하여 학교를 찾아갔으나 이미 졸업한 뒤라 소재를 파악할 수가 없자 신문에 다음과 같은 광고를 낸다.

지나간 열사흘날 황색신문 잡보에 한국 여학생 김옥련이가 아무 학교 졸업 우등생이라는 기사가 있기로 그 유하는 호텔을 알고자 하여 이에 광고하오니, 누구시든지 옥련의 유하는 호텔을 이 고백인에게 알려주시면 상당한 금으로 십류를 양정할 사

이 광고를 옥련이 머물던 호텔 종업원이 보고 연락함으로써 부녀의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신문의 기사를 통해 딸의 소식을 확인하고 찾아 나서 광고를 통해 극적인 상봉

에까지 이루게 된 것이다.

긴급한 사건을 신속하게 알리는 호외에 관한 묘사도 등장하였다. 『혈의누』(31~32쪽)에서 일본에 가게 된 옥련이 식구들과 함께 호외를 통해 청일전쟁에 관한 소식을 알게 되는 장면이 나온다. 하교 길에 ‘호외’를 외치며 바쁘게 뛰어 다니는 사람을 목격한 옥련이 집에 와서 일본인 양모에게 호외가 무엇이나 물어보자 그 양모가 하인을 시켜 사오도록 해서 함께 본 것이다. 한국에서 호외가 최초로 발행된 것은 1894년 7월 23일 인천의 일본인 신문 『조선신보』가 청일전쟁이 임박했음을 알린 것이었다. 일본에서는 1868년 5월 15일 『중외신문』이 ‘별단판’을 발행한 것이 최초로 평가되며 ‘호외’라는 용어는 1876년 10월 29일 『조야신문』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정운현, 1997, 15쪽). 청일전쟁 이전에 일본에 건너갔던 어린 주인공 옥련은 호외를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일본인 양모가 하인에게 호외를 사오도록 시켰다는 사실이다. 야마모토 후미오(1970/2000, 91쪽)에 의하면 일본에서도 원래 호외는 고정 독자들에게 무료로 배포되었으나 청일전쟁 당시부터 신문들 간에 속보 경쟁이 벌어지고 속보 발행도 잦아지면서 도쿄에서는 가두에서 유료로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전문 판매인도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당시의 일반 백성들은 신문에 나는 일은 대개 부정적인 일이 많은 것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설에서 좋지 않거나 예사롭지 않은 일들을 언급하며 ‘신문에 날 일’이라는 식의 표현들을 사용한 예가 보인다. 『빈상설』(61~62쪽)을 보면 못된 첩 평양댁과 하인이 가두어 놓았던 정실 부인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하인이 ‘아마도 누군가와 눈이 맞아서 함께 도망쳤나 보다’며 “만일 혼자 나섰을 말이면 몇 걸음 안 나아가서 발길에 툭툭 채이는 흠아비에게 붙들려서 내외국(內外國) 신문에 뒤떠들었을 터인데 괴괴하고 아무 말 없을 때에는 가히 알일이 아닙니까?”라고 말한다. 혼자 도망갔으면 불한당을 만나 신문 기사감이 되었을텐데, 그런 일이 없는 걸 보니 누군가와 눈이 맞아 도망갔음에 틀림없다는 말이다. 또한 『혈의누』(34쪽)에도 옥련이 밤중에 혼자 바깥출입을 하자 그 양모가 처녀 혼자 밤중에 나돌아 다니다가는 “신문 거리만 되겠다”며 망신당하기 십상이라고 나무란다. 야밤에 봉변을 당해 신문 기사로 등장하면 망신이라는 인식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당시에 신문 기사가 주로 사건이나 사고 등 부정적 소재 위주로 보도되다 보니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7) 사진

조선 후기에는 특정 인물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초상화 같은 그림 매체가 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채백, 2014). 개화기에 오면 이러한 목적에 사진이 등장하여 활용

되었다. 개화기 한국 사회에 사진이 언제, 어떻게 전래되었는지는 명확치 않다. 하지만 주한 외교 사절들이나 선교사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소개되어 왕실에서 먼저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신문에 사진이 사용된 것도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H.G. Underwood)가 1897년 4월 1일에 창간한 『그리스도 신문』이었다. 이 신문은 창간 당시부터 고종의 석판 사진을 독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하였으며, 1901년 2월 28일자 지면의 외국 교회 통신란에 실린 기사들에 사진을 사용한 것이 최초의 신문 사진으로 평가되고 있다(최인진, 1992, 44~46쪽).

이렇게 도입된 사진은 신소설의 무대가 되는 1910년 전후한 시기에는 제법 보급이 늘어난 상태였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사진의 용도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멀리 떨어진 지인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단으로서의 용도이다. 『추월색』(19쪽)을 보면 남자 주인공 영창의 아버지가 지방으로 부임하여 헤어지게 되자 여 주인공 정임은 자신의 사진 한 장을 꺼내어 뒷면에 주소를 적어 주며 “이것은 내 사진이요, 이 뒷등에 쓴 것은 우리집 통호수”라며 영창에게 건넨다. 서구에서 사진이 발전하게 된 것은 산업화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정든 공동체를 떠나 도시로 몰려들면서 헤어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할 사회적 수요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Williams, 1975/1996, 264~265쪽). 개화기 한국 사회에서도 사진이 도입되면서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며 그리움을 달랠 수단으로 자리하기 시작했음을 보여 준다.

사진의 또 다른 용도는 새로운 사람을 소개할 때 얼굴을 알려주는 수단이다. 『재봉춘』(79쪽)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여주인공 허씨부인이 남편도 곤경에 처할 것을 염려하여 집을 나가 자취를 감추자 원래 못마땅해 하던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새장가를 들라고 권하며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모친) 이름 말할 것 없이 사진을 보여주마.

아들) 그리하여도 관계치 않습니다.

모친) 열 모에 한 모 나무랄 데 없는 신부다. 여기 사진이 있으니 보아라

하면서 문갑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어 이참서 앞에 다 놓으니,

모친이 평소 눈여겨보던 여자의 사진을 꺼내 놓고 자식의 배우자로 권하는 장면이다.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도입되면서 나타난 새로운 기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4.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개화기 신소설에 나타난 그 시대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양태를 살펴보았다. 개화기 인간 커뮤니케이션에서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규정할 수 있겠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새로운 매체의 출현으로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다양화되었다는 점이다. 신문과 서적, 우편, 전보, 전화, 사진 등 새 매체가 출현하여 백성들의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됨으로써 이 시대 백성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확대, 강화되었다.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소식도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원거리에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 새로운 미디어들이 당시는 아직 초기 단계로서 보편화되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사회를 열어갈 기반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둘째, 새로운 매체들이 출현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구두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하는 전통적 방식이 중심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구두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조선 후기에 비해 변화들이 나타났다. 구두 커뮤니케이션에서 신분과 연령이 가장 큰 변수가 된 점은 여전하였지만 조선 후기에 비해서 격식과 예법이 많이 완화되었다. 이러한 측면은 부부간이나 형제간 등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조선을 지배한 유교 이데올로기가 후기로 오면서 약화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셋째로는 문자 문화의 기반이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새로 등장한 매체들도 대부분 문자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로서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편지의 사용도 대폭 늘어났으며 천민 신분도 문자를 사용하여 기록하고 책을 읽는 사례가 나타났다. 조선 후기에는 인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던 경우도 개화기에는 문서로 우편을 통하여 전하는 사례들이 늘어났다. 여성이나 천민 계층에서 한글 사용이 늘어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넷째, 개항으로 외국과의 교류가 가능해짐으로써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 세계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신소설 속에서는 외국에 유학하거나 우여곡절 끝에 외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사례도 등장하였다. 외국에 편지나 전보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도 성립되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 간에 필답이나 통역 등을 통해 커뮤니케이션하는 경우들이 등장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신소설을 통해 본 개화기의 인간 커뮤니케이션 양태는 여전히 구두 커뮤니케이션에 주로 의존하면서도 미디어에 대한 의존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문자와 인쇄술, 전신 등의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해 원거리 커뮤니케이션도 신속하게 가능해졌으며 문호 개방에 따라 생활 세계 및 세계관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커뮤니케이션의 영역과 범위도 확대되며 그 방법도 다양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 논문은 개화기 신소설 9편을 통해 거기서 나타난 인간 커뮤니케이션 양상을 귀납적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가능한 다양한 사례를 추출할 수 있도록 분석 대상을 선정했지만 본 논문의 분석이 그 시대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양태를 빠짐없이 포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으로 더 많은 소설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다양한 사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길호·김현주 (1995). 『커뮤니케이션과 인간』. 서울: 한나래.
- 강준만 (2009). 『전화의 역사: 전화로 읽는 한국문화사』. 서울: 인물과사상사.
- 김광옥 (1993). 조선조 대항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참요고. 한국언론학회 연구보고서. 『한국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탐구』, 1~25.
- 김세철·김영재 (2000). 『조선시대의 언론문화』.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영재 (2010). 『조선시대의 언론 연구』. 서울: 민속원.
- 김영주 (2007). 신문고 제도에 대한 몇 가지 쟁점.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39호, 250~283.
- 김윤식·김현 (1996). 『한국문화사』. 서울: 민음사.
- 김주연 (1985). 사회변동과 여성 성의식의 변화 연구: 전후 한국여류소설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 연구』(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 24집, 1985.12, 177~199.
- 나가미네 시게토시(2005). 다지마 데쓰오·송태욱 역(2010). 『독서국민의 탄생』. 서울: 푸른역사.
- 나은영 (2002).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인간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서울: 한나래.
- 마에다 아이 (1973). 유은경·이원희 역(2003). 『일본 근대 독자의 성립』. 서울: 이룸.
- 문용식 (1997). 조선조 후기 사회 변동과 연작형 가문소설. 『국제어문』, 20집, 43~64.
- 박영학 (1990). 『동학운동의 공시 구조』. 서울: 나남.
- 박일용 (1991). 인물형상을 통해서 본 <구운몽>의 사회적 성격과 소설사적 위상. 『정신문화연구』, 14권 3호(통권44호), 187~207.
- 설성경 (2005). 『신소설연구』. 서울: 새문사.
- 야마모토 후미오 (1970). 김재홍 역(2000). 『일본 매스커뮤니케이션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역음 (2006). 『역사 용어 바로 쓰기』. 서울: 역사비평사.
- 윤상길 (2007). 통신의 사회문화사. 유선영 외 편. 『한국의 미디어 사회문화사』 (97~167쪽). 서울: 한국언론재단.
- 이광린 (1969). 해국도지의 한국 전래와 그 영향. 이광린, 『한국개화사 연구』 (2~18쪽). 서울: 일조각.
- 이만렬 (1985). 『한국사연표』. 서울: 역민사.
- 이민희 (2009). 17~18세기 고소설에 나타난 화폐경제의 사회상. 『정신문화연구』, 32권 1호(통권 114호), 129~154.
- 이상희 (1993). 『조선조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현상 연구』. 서울: 나남.
- 이온죽 (1988). 북한소설에 나타난 북한의 사회적 가치관과 인간관계의 유형. 한국사회학회 사회학 대회 논문집. 서울.
- 전광용 (1986). 『신소설연구』. 서울: 새문사.
- 전광용·송민재·백순재 공편 (1968). 『한국신소설전집』. 서울: 을유문화사.
- 정운현 (1997). 『호외, 백년의 기억들』. 서울: 도서출판 삼인.
- 정일권 (2010). 조선 후기 사회의 변화와 동학운동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요소 분석. 『한국언론

학보』, 54권 6호, 81~102.

조동일 (2005). 『한국문학통사4』. 서울: 지식산업사.

채백 (1995). 통신매체의 도입과 한국 근대의 사회변화. 박정규 외. 『한국 근대사회의 변화와 언론』 (147~196쪽).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채백 (2014). 한글 고전소설을 통해 본 조선 후기의 인간 커뮤니케이션 양태. 『한국언론정보학보』, 65호, 27~50.

최인진 (1992). 『한국신문사진사』. 서울: 열화당.

Burke, James (1985). *The Day the Universe Changed*. 채백 편역(1996). 『세계언론사』 (49~68쪽). 서울: 한나래.

Coulet, Corinne (1996). *Communiquer en Grèce ancienne*. 이선화 역(1999). 『고대 그리스의 의사소통』. 서울: 영림카디널.

Goldmann, Lucien (1973). *Pour une sociologie du roman*. 조경숙 역, (1982). 『소설사회학을 위하여』. 서울: 청하.

Ong, Walter J. (1982). *Orality and Literacy: The Technologizing of the Word*. 이기우·임명진 역 (1995).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서울: 문예출판사.

Williams, Raymond (1975). *Television: Technology and Cultural Form*. 채백 편역(1996). 『세계언론사』 (261~274쪽). 서울: 한나래.

투고일자: 2014. 08. 27. 수정일자: 2014. 10. 10. 게재확정일자: 2014. 10. 18.

A Study on the Modes of Human Communication Reflected in the New-style Novels of the Korean Enlightenment Era

Baek Chae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d the modes of human communication of the Korean enlightenment era through 9 new-style novels with the assumption that the fictitious world of novels reflect the social realities of that time. The most noticeable fact was that the communication environment of that time were remarkably diversified with the new media, such as newspaper, printed book, postal system, telegraph, telephone, and photo. But the communication of most people was mainly relied on traditional oral communication. In oral communication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and age were the most important variable as usual but the formality and etiquette were weakened than Late Chosun Dynasty. The distribution of written culture was enlarged especially by women and lower class. The contact with the foreign cultures which had become possible after the opening of ports brought about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 conclusion it can be said that the communication of people in the enlightenment era was mainly by oral communication but the reliance on the media was enlarged gradually.

KEYWORDS communication history, the enlightenment era, people, human communication, oral communication, group communication, mediated communication